

-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선교 10개년계획에 모국에서 후원

본총회를 대표하여 오윤태총회장과 선교10개년 계획실행위원장인 김덕성목사가 모국을 방문하여 여행 중인 정인수목사와 협력하여 모국에 있는 각교파지도자들과 모국실행위원회들과 거듭상의를 하였다

작년 10월 22일 경도에서 가졌던 모국 대표단과 총회임직원 및 실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모국 후원회 강화의 방침에 따라 각교파를 망라한 강력한 후원회 조직을 하였다고 한다

후원회 조직에 앞서서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에있는 기독교사회회의실에서 황판은목사 사회하에 선교60주년기념 모국후원회 보고대회가 열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중경총회장 이환수박사의 성경봉독이 있은후 김덕성목사의 재일대한기독교의 선교60주년 기념사업보고가 있었다. 본국 후원회 활동현황에 대하여 조덕현목사가 보고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오윤태 총회장으로 부터 재일교포의 위치 정인수목사로부터 재일한국교회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성감식목사로 부터 작년 10월에 일본에서 가졌던 기념대회에 참석한보고가 있은후 김덕성목사가 앞으로 10개년동안 재일한국교회가 가지는 선교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며 선교60주년기념 모국후원회는 발전적인 해소를 하고 앞으로 10개년 전도계획을 위한 모국 후원회는 새로 조직하여 사업은 계속 추진키로 결

정하였으며 후원회 조직은 각교파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들에게 일임시켜 임원들을 추대키로하고 오윤태총회장의 눈물에 감긴

감사의 인사가 있은후 변형규감독의 축도로써 보고대회는 끝마쳤다. 참가수는 각교파 지도자들이 60여명 이라한다

모국 후원회를 조직

3월11일 오전8시45분에 서울 YMCA회의실에 제1차 실행위원회가 소집되어 김덕성목사(예장통합) 황규석목사(예장합동) 이영민목사(기장)이병설목사(감리교) 최명환목사(예성) 지원장목사(루터교)장성환목사(복음) 각교파 총무들이 참석하였고 김동수목사 황판은목사 노기원목사 김중근목사 김처호장로 김의환목사 조덕현목사 이해영목사 정용철목사 홍현설목사 김지걸목사등 여러 목사님들을 실행위원으로 보충 강화키로 하고 3월17일 오후 5시30분 다시집회되어

후원회회장 한경직 박사
부 회 장 노진현 박사
" 김활란 박사
" 이해영 목사
실행위원회
위 원 장 홍현설 박사
부 위 원장 김중근 박사
서 기 조덕현 목사
회 계 노기원 목사
가 각각 피선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하여 2년후에는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이 되도록 하였다고한다. 그리고 금번 우리총회 대표들은 모국교회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점을 협력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한다. 첫째는 전도목사 계속 파송 요망 (1)단기전

도목사(3개월) (2)장기전도목사 (3)교육담당 전도자들을 보내주실것 둘째는 기독교회관을 大阪에 건설하는데 한국원으로 3천만원을 모국교회가 원조하여 줄것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모국에서는 전국적인 후원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각교파가 아끼지 아니할것을 약속하였다고한다

금번에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나라에 교파간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교파가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전도문제를 위하여서는 대동단결하여 적극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도울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바이다. 끝까지 이와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비는 바이다. 또한 오윤태 김덕성 정인수목사들은 선교10개년 계획을 위한 모국 각교파의 후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정부 요인들을 예방하여 금후 전도목사들이 일본에 오는일에 대하여 여권문제 등 관계당국자들로부터 협력하여줄 것을 약속 받았다 한다

윤치영 공화당서리 김형욱 정보부장 황종을 재무부장관및 차관 그리고 문교부 국회문공 위원장 육인수씨 그리고 문화공보부 외무부 등을 예방하여 재일대한기독교총회가 교포60만을 상대로 하여 계획하는 선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시킨후 적극 협력하여 줄것을 약속받고 귀일하였다고 한다 (김덕성 기)

신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2) 세상으로

西成
손
소
돌
집
사



성경을 읽고자 한글강습소에 나가

이탈은 西成교회의 손소돌집사를 찾아갔다. 몸집이 큼직하여 체격이 좋아보였다. 지금은 나이도 잡수시고 교회압으로 인해 집에서 쉬고 계신다. 「나에게는 사는 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뿐 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것 뿐 이다」고 여생을 보내고계신다.

해방 직후 岡山에 살고 있었는데 매우 생활에 곤란하여 西成교회의 김정정장로와 친척이 되어 김장로를 찾아 大阪에 나왔다. 그때는 술을 많이하고 생활상태가 안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장로를 따라 교

회에 나오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달라져 생활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다른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손집사는 글을몰라 읽지못해 매우 답답했다. 손집사는 기도했다 「저에게 성경을 읽을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이를잡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히부 한글강습에 나갔다. 성경을 읽고자 쉬운이 넘어서 국어강습에 나갔던것이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셋 딸 셋 본적출생지는 전남 여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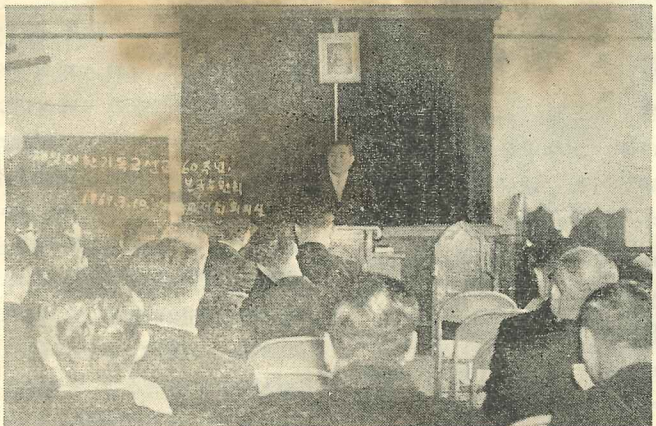
총회 임직원회

4월15일 오후7시반부터 모인 총회임직원회에서는 단기선교사로 오신 5목사의보고회와 환송회를 열어 3개월간의 로고를 감사하는총회장 오윤태목사의 인사가 있은후 앞으로 각전도소에 대한 대책과 계속전도할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번에 5선교사를 파견한 각교회와 각교단에 감사장을 보내기로 가결하였다. 아래와같이 토의결의한것을 보고한다

(1)이해준강도사 水島교회 부임결정 (2)岡山전도소 판서지방회 일임 (3)佐世保전도소 박창환전도사부임 승인 (4)静岡전도소 김안홍목

사 겸목결정 (5)이영숙전도사는 앞으로 부녀국간사와 여전도회총무일을 할수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6)이성주목사를 장기선교사로 승인하고 북해도지구를 담당 선교하게함. 여기따라 최경식목사 유석준장로를 5월중으로 북해도로 보내어 그준비활동을 하게함 (7)이청일씨 본국연세대 신학대학에 2년유학을 승인함 (8) 제2차 단기선교사의 전도지구 결정 仙臺-임택진 静岡-이순경 德山-홍효균 九條 明石-이강산 岡山-김연호 (9)총회는 지금 일본국회에 상정중에있는 2법안 야수구니神社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하여 반대성명을 내기로 가결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란 섬 목 사

예수께서 저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했다

우리는 크게 변하여 가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변하게 할수있는 것보다 그의 세상은 더 빨리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도 그 방법을 고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세상은 이 신시대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그 행위의 방법을 고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복음도 이 새시대의 질을만들려면 그의 설명하는 방법을 고쳐야 될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딸을 자연과학관에 데리고 갔읍니다 그 아버지는 인류역사 시작 이전에 지상에 있었던 수 많은 큰 동물들의 뼈를 그 어린 딸에게 보였읍니다 그 아버지는 이 큰 동물들이 이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 소녀가 질문하기를 "누가 그들을 죽였읍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세상이 바뀌지는는데 그들은 바뀌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들은 죽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큰 동물들은 저희들이 변하여 가기보다 더 빨리 변하여 가는 세상에서 뒤떨어진것이요 또는 죽기위하여 뒤에 남겨진 것이라 할것이다

교회도 변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위해서 뒤에 떨어트림을 당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변화한다는것 때문에 변화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왜 변화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극적인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속장치로 바꾸는 자동차 운전수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들을 위하

여 계획하신 자유와 즐거움을 알게 하도록 도우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하고 연대를 초월합니다 이는 각사람의 새시대를 위하여 뜻깊게 지어지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그이유는 예수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각 사람의 새 시대를 위하여 정당하게 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목사의일만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신도의 소명입니다 복음은 성직자에게서만 전하여져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또한 모든 교회원들의 생활을 통하여서 설교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은 새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즐거움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안에서 타인을 위한 신앙이 지적된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청지기인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터 우리를 따라오는 모든인간의 복락을 위하여 쓸수있는 모든물건을 신실하게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오사카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이 필요한것을 도와줄수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백성이 큰 변화의 시련을당할때에 낙담과 절망으로진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말하라--너희들은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당신들의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라고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는 새방법을 시험해 보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말씀하십니다

(카나다 장노교회)

기구를 바꾸기로

N C C 총 회

NCC제22회 총회가 지난 3월11 12일 東京유니온 처에서 가명대의원 130명 그외에 다수의 내빈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금년의 총회는 기구개혁과 거기에 따르는 신기약이 심의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기구개혁은 과거년동안 기구개혁위원회에서 심중히 준비를 한 후에 제출된것인데 그 주지는종래의NCC가 기독교협의회의란 이름그대로 가명교회와 단체의사무연락협의회에 지나지 못하였지만 NCC의 본래의사명은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협동해서 추진하고 나가는데 있고 따라서 기구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구개혁위원회에서 명칭을 "교회협의회의"로

개칭하자고 하는 의견도있었지만 일본과 같이 아직 교회의 교세가 약한곳에서는 주지는 살려야 하지만 명칭은 보다 호환적인 "기독교협의회의"란 종래의 것이 유효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다고한다 그리하여 종래의 제위원회를 선교·교육·봉사의 3부로 재조직하고 거기에 사업부로 문서·시정각의 이대사업부를 병설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NCC의 활동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이 심의된 기구 안전중 중요한 것들은 기구개혁에 따라 앞으로 총회가 3년제가 될것 (단 금년은 개최) 靖国진자법안반대성명결의안등이 있었지만 특히우리총회에 관계깊은 안전은 NCC가 총회선교 60주년기

념사업후원으로 KCC회관건설에 대한 모금에 협조하도록 가명교회 단체와 관계있는 해외교회에 호소하기를 결정하였으며 총간사사무취급 (금후는 총간사대행으로 개칭) 으로 사무하는 본총회 총무 이인하목사는 후임총간사가 학정되기까지 유임되었다

서 남 지 방 생 도 대 회

지난5월5일 下関교회에서 서남지방회 교육부 주체인 제8회 생도대회가 약80명의 생도와 교사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교육부장 최창화목사의개회예배설교가있은후 곧 요절암송과 동화의 순서에들어갔다 한편 한편 암송하는 학생 부끄러워 더듬더듬하다가 때로는 가만히서있는 학생 손짓눈짓하면서 열심히 동화를 이야기 하는 학생 암송이 끝나고내려오는 학생에게 박수하며 수고를 높이 평가하는 장면도 있었다

가장재미있는 순서는 탁구대회였다 각교회대항다 자기교회선수를 응원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요절암송때와는 분위기를 달리했다

작년도에는 탁구대회에서 성적이 좋지못하기 때문에 잘 연습한 선수를 다리고 온 우베교회는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오후 4시50분 탁구대회를마치고 곧 시장식에 들어가 교육부장의 전체 강평이 있고 지방회장 김덕성목사로 부터 우승컵의 수여가 우베교회대표에게 있었다

참가자에게 성경 기타상품을 수여하고 시모노세기교회로부터 저녁식사의 접대가 있었다

금년도로써 여덟번째라는 생도대회는 점점다채로운순서와 내용이 요구되면서앞으로 교회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서 남 지 방 부녀 연합 수양회

서남지방 부인회는 수양회를 俵山온천에서 가졌다 宇部 下関 小倉 折尾 福岡 각교회 부인회 간부들이 32명 참석하여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이라는 주제하에서 부녀국장 정인수목사로 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전도국장 김원치목사부터는 문화생활에 대하여 강연을했다 또 본국에서온 이영숙전도사는 본국부녀전도의 보고와 앞으로 재일교회 부녀활동에 이바지 하기로 맹서하였다 홍영기목사는 개회와 폐회에배를 담당하면서 서남지방 부녀연합총회와 교회부흥에 대한 토론회등으로 3일간 재미있는접회였다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13)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자와 새로운 인간상의 창조자로 세우셨다 (15) 바울의 구속 사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주론의 표현 방식이 보충되고 있다 평화는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대단히 힘든것이다 왜냐하면 전에 거룩한교회에서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막힘담이 예수의 죽음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즉 "원수된것" 곧의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골2:14)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불화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것이었다 율법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약속하는 것을금하였고 만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들어오려고 하거든 저희 앞에서 문을 닫아 버리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에 넘기움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스도는 복종과 십자가로율법을 성취하여 율법이 교발하는 유대인과 율법이배척하는 이방인의 구주가되었다 (계속)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出入国管理法案反対委員会を基盤に

出入国管理法案反対 キリスト者国際連帯会議結成

6月22日国際キリスト者 法案反対
集会に 大阪扇町公園へ全員参加を

講演者 参議院議員(法務委員)亀田得治

去る6月3日、韓国家庭文書宣教会日本支部と有志が発起人になって関西を中心に36名が集まり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出入国管理法案反対委員会が結成された。キリスト者としての証しを世の矛盾に対して積極的なさねばならないという決意から結成された。委員長に俞錫濬長老(京都)委員にベ琪煥牧師、麦仁道牧師、李小龍信徒会々長、金主日関西女伝道会々長、全圭長、張徳日、洪邦憲、金勇聖、朴光福、金秀男、崔忠植講道師以上13名が選出された。

この日、この斗いかは在日韓国人の問題ではなく、日本の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大阪教区の議長西原明牧師など3名が出席され、今後の方向において共に闘かうことを約束した。

この委員会が中心になって6月6日、午後4時より、日本

信徒、西原明、石田正弘、妹尾治夫牧師など13名と、当局員允台牧師、李仁夏牧師、俞錫濬長老など20名と、協議した結果、早急に、反対運動を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確認しすべてのキリスト者を包含した「出入国管理法案キリスト者国際連帯会議」が結成され、22日(日)に統一大会を開催するまで、ビラ配布、街頭署名、座り込み、デモの運動を展開することになった。いずれにせよ、私達自身が、真剣に、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

実務委員は次の通り

代表者 俞錫濬、妹尾治夫(東梅田教会牧師) 事務局長 崔忠植講道師 委員 ベ琪煥牧師、麦仁道牧師、朴光福、合田悟牧師(自由メソジスト教会) 原野和雄牧師(豊中教会) ルイス・グリア(東和歌山教会) 羅松発牧師(中華教会)

けるように、はっきりと分けられる。羊飼いである生きておられる神がちゃんと見ておられるからである。今日は人にかくれて長期間主日学校の為に奉仕された先生方を表彰する日です。全てを見ておられる神が、総会の先生方の心に働いて、ほうびをあげなさいと導かれたので、ほうびを与える事になったのです。この世には、お金のたくさんくれる、またすばらしいほうびが多い。しかし今日、貰うほうびは、この世で一番尊いほうびである。それは神様から下されたものだからです。これからみなさんもずるい人にならないで、人が見ようと見まいとだまて、一生懸命に奉仕する人となるなら、神様はききと報いて下さる」という様なものでした。献金もなされた。それからいよいよ、表彰式に入った。中部地方会々長であられる白南哲牧師に金部長から賞状が手渡され、白牧師は賞状を読まれ、賞品を手渡された。最初にうけた人は、豊橋教会の朴成子教師で30年以上勤続された。次に名古屋の朴憲徳教師10年以上勤続であった。それから続いて、大垣教会の趙勇教師、5年以上が、名古屋教会の李富豪教師、権仁淑教師、朴洋子

教師等であった。現役教師全員にも記念品(万年筆)が贈呈された。それから次に、出席の生徒全員の名が一人一人(幼稚科から赤ちゃんに至るまで「勿論親と共に」)部長によって読まれ、一人一人に地方会々長白牧師から、記念品(聖句入りの湯のみ)が贈呈された。賞品授与が終り、頌栄を歌ってから、名古屋教会堂会長朴命俊牧師様による祝禱をもって、礼拝並びに表彰式が終った。その時、姜貞子主事が大阪の方に行かれ、そこで関西と西南の為に奉仕される事になり呉寿恵せん生がその後任として奉仕される事になった事を伝え拍手をもって交換のあいさつに変えたのである。次に食事の時間となり、みんな自分自分の持参した弁当を食べた。午後1時

少し廻って第二部に入り、この時間は金安弘牧師(豊橋教会)と朴憲徳(名古屋教会執事様にまかされることになった。レクリエーションに入り楽しいゲームや遊技がなされた。ゲームも終りその場で閉会の祈りをもって、全てが終った。午後3時であった。参加者は教師25名、生徒80名で盛大であった。七十周年に向かう事業計画をもちたてる為の一環として、この様な教育大会が催された事は、意義があった。莫大な費用を浪費して何の為にやるのかと思われ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田舎の小さな教会から、中心の大教会に集って、小さい魂たちがどんなに励まされたことか全てが神の導きであり、感謝であった。(部長記す)

三今日の世界における 教会の宣教三

講演 1、教会の宣教についての聖書的根拠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

3、新約聖書の描写

これは本質的には旧約聖書と同じであるが、キリストにおける新しい契約へと成就させている。神は愛す(ヨハネ3:16)、そしてはじめに彼の子(ヨハネ17:18)を、そして聖霊(ヨハネ14:26)を送り給うイエスはガリラヤ湖の側でペテロとアンドレを召した。わたしについて来なさい。あなたがたを人間をとる漁師にしてあげよう。ミそもものはじめから彼らは宣教する者となるべき運命にあった。勉強の時を過ぎてからというものではなかった。最初に彼らは宣教にたずさわらねばならなかった。これは弟子たることの本質的役割である。われわれは手を伸ばして証と奉仕を表現出来るだけの限りについて学ぶのである。

ある近代のキリスト者は言った、ミ教会をして不正な立場ゆえに苦み自分たちのことを聞かす方法を持たない人々のグループを発見させ、それらと同一化させよ。教会は声なき人々の声となるべきである。教会はそのようなグループを見出し、彼らと同一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に十字架の近代的な道、キリスト者の責任の道があるのである。

新約聖書は宣教の方法としてあがないの受難の意味を物語っているだけではない。そ

れはまた、神の宣教のゴールの内容にも満ちている。パウロはこれを「キリストにあって一つに帰せしめよう」と言っている。これは次のことを示す(1)神はすべての人を彼自身とまた他の人と一体にするよう導く関心がある。このように教会のすべての人は人間のあいだの和解のために働くべきである。地域や世界のシャローム(安寧)や平和を回復するために。教会は和解の地域である。キリスト者は産業争議を克服し、階級分裂を乗り越え、人種差別を根こそぎにし、キリストの体がこわれるのをいやすことに関心をもつ(2)キリストはすべてのものの主である。教会に属する者全員はキリストの主権が生の一要素であることを示さねばならない。キリスト者は人生におけるすべての種類の状況へと入るよう呼び出されていて、キリストがそこに居給い、それぞれの状況との鍵をにぎっていることを示すのである。これはキリスト者が証せねばならない真理であり、人を自由にする真理でもある。

—続く—

(ランサム牧師)

中部地方教育大会

5月5日(月、子供の日)午前10時半より、名古屋教会に於て開かれる。午前11時まで、子供達は庭で賑やかに遊んでいた。また、一階の教会学校の為のホールには、教会活動主日学校、青年会、婦人会、60周年記念行事等の壁字、壁絵、写真等が展示され人目を引いた。これは、アンダーソン先生夫妻と申英子伝道師とが集め、展示して下さったものです。

午前11時少し廻って、礼拝並びに主日学校長期勤続教師表彰式が始められた。司会は金光洙長老が担当された。聖書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31節より45節までが選ばれていたが、31節より45節までを名古屋教会の中学生が、41節より45節までを岐阜教会の中学生が朗読した。交読は詩篇23篇(主は我が牧者なり)が交読された。それから、中高生たちによる聖歌隊の合唱があり、非常にすばしかった

それが終ると、金承俊講道師による「ひつじとやぎ」という題の説教があった。その内容は「外から見ると全く内容のちがうものが共に生活している。しかし、時が来ると羊飼いがひつじとやぎとを分





聖書

むなし時代

エペソ 4:17~24

1、今日は文明の発達によって便利な生活になってはいるが、実は心のむなし時代になったのである。(第一ペテロ 1:18) 或る人がヨーロッパからインドにジェット機で飛んでニューデリーに着いたが空港から出て行こうとしないのでスチュワデスがなぜそこに未だに座っていますかと尋ねたら、私の体はニューデリーに着いたが、魂がまだ着いていないのでその魂の到着をここで待っています、と答えたそうである。これは物質文明の発達に精神文明が追いついて来ていないことの風刺である。人間の知恵はむなしのものである。(第一コリ 3:18) 詩人は「低い人はむなく、高い人は偽りである。彼らは共に息よりも軽いから力の岩である神にかなる民も信頼せよ」と言っている。(詩 62:7~9) 人間が作った文明の発達も、その魂が伴った健全なものでないとこのようにむなしものとなる。(詩 33:10)

2、むなしという言葉にたこという意味もあるとのことである。たこは八つの足をもっているが食物がなくなると自分の足を食べ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ある。今日の便利な文明生活はその精神文化が未開発なためにいろいろな問題をおこしている。犯罪や不倫な不道德の生活(第1コリ 5:1~3) 青少年や老人の問題等は、その顕著なものである。人類は利己追求にあくせくしている。高度な文明の中で自分の生きる目的を失って虚無的ななげやりの生活をしている(詩 2:1) これは自分に与えられた神との交わりをもって魂の糧である霊的な生活を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第一コリ 2:14)

3、たこが自分の足を食べるように今日の時代の人々は神から与えられる霊的な豊かな恵み(エペソ 4:16)を犠牲にしてまでも、毎日物質の生活におわれているのである。(ルカ 6:31) 神の言はもはや彼らの心の中に入る余地すらないのである。(ロマ 1:21) そしてますます神から遠く離れていてしかも自分が正しいかのような錯覚におちいつている。(ロマ 1:23) むなしという言葉

葉は偶像といういみをもって、パウロはルステラ地方で足のきかない人の足をなおしてあげたので彼らはパウロを神だと信じて犠牲を彼に捧げようとする時に、人間である自分の力でなく神の力によって足を治したのだから神に

栄光を帰するようにすすめた(行 14:8~15) 人間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知恵を忘れて人間のむなしの智恵によっている。このむなし時代にキリストを着た新しい人とし生活しよう。

— 教会教育シリーズ (4) —

キリスト教教育の重要性

西宮教会 尹 宗 銀 牧師

(5) 関係によって展開される教育

聖書が歴史の中で働く神の言葉を内容としているならば、教会教育は、この神の言葉にかかわりをもつのである。

教育における主要素は相関関係である。わたしたちにとって関係の言語は、人間の生活と歴史の中に働く神との交わりの道具である。円熟した人の目標は意志統合である。この意志統合はしばしば、信仰と教義、道徳的標準または社会的適応という言葉でいいあらわされている。またこれは精神的、道徳的、社会的健全を図るに必要かもしれないにもかかわらず、キリスト教教育において意味している統合はそれらよりもはるかに深い内容をもっている。キリスト教の統合は、神と人、人と人との人格関係において生起する。人間の神との関係は意志、心、情緒のような部分的ではなく、全人的人格交わりである。その本質は、言葉、態度、環境によって部分的にあらわされても、やはりその全体を伝えるのは愛の関係である。元来神学は、これらの諸関係を説明するために生じた学問である。私たちが、聖書を、神の大能な働きの記録だと信じ、解釈するならば、その結果として神思想も、歴史における神と人との関係を内容とするのである。信条は聖書の要約である。種々な信条は現実に働いておられる神信仰の声明書である。神は世界を創造し、イエス・キリストと聖霊をつかわし、聖霊は教会を創造し、それを導くのであり、私たちに永遠の生

命を与える。三位一体の教義は一見むずかしいが人がそれを自分の中に働く所の神を知る方法として見る時より大きな意味を発見するであろう。

6 共同体の重要性

マージョリー・リーヴズは、学習者に注ぎ込む豊富な外的経験に対して適応の重要性

を強調している。学習者は調節(adjustment)のプロセスにおいて安全性、愛、ガイダンスを必要とする。それは、これらの要素が欠如するならば、必然的に、不安、精神的混乱、無意味さの結果になるからである。人間は共同体の中で成長するのであり、他人のために奉仕する時に自分の生きがいを見出すのである人はお互いに人格として認め合う共同体の中で、他人をうけ入れ、助け合うように、神の恵みによって押し出される世俗的教育者も宗教教育者と同じく、共同体(communitiy)における教育の重要性を強調する点においては一致する。しかしキリスト者は神が、教会においてだけでなく、全地域社会においても働いておられると主張する。また両者共に学校外のグループの重要性を主張するが、キリスト者は家庭を、キリスト教の「細胞」として考えるのである。イエスの言葉に「ふたりまたは三人が、わたしの名によって集まっている所には、わたしもその中にいるのである」(マタイ 18:20) とある。主の名の下に集まる弟子たちはすべて神の救いと愛とを担う共同体になる。この共同体

中で破壊された関係が癒やされ、砕かれた霊が回復されるのである。

キリスト教教育哲学は、教会が学習の中心機関だと主張する。しかしそれは教会堂の建物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教会は、はじめからあらゆる人の集団において救いの運動を起している。旧約聖書は家庭の宗教儀式、律法の知識、主を恐れることをもって子弟教育のモットーとした。この教育の担い手は両親であった

19世紀に日曜学校が設立されるまでは、家庭が宗教教育の中心機関であった。

19世紀にキリスト教教育に関する本の中で、ホレス・ブシュネルの「キリスト者養育(Christian Nurture)」の書は貴重である。彼が主張したのは「子供はひとり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成長すべきであり、さもないと自分の存在を決して知らない」と。これはキリスト者の伝道と教育の責任が家庭にあるとの主張である。

(7) 教会と養育

キリスト者養育の主な代理者は家庭やその他の教育機関に助けられた教会である。人は信じて礼拝を献げる共同体の中でキリスト者になる。養育のプロセスにおける教会の働きは、個人が、共同体や自分自身の生活の中で神の現存を見分け、神の恵みに信仰をもって答えて行けるように仕向けるのである。

(8) キリスト教教育の方法

キリスト教教育の目標は、古い伝承によって解釈されたように、神と人に関する人間の知識から引き出される。キリスト教教育哲学は、その真理と関連性の表現で考えられた神学をもってはじまっている。私たちは、教育に関連した、あらゆる科学的発見と教育学芸の助けをかりて、神学となら矛盾しない学習方法を引き出すのである。私たちは一般教育とキリスト教教育との定義を明確にし、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学習者が目指す目標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また私たちは、ダイナミックな関係神学によって、教育の内容と方法がどのようにかわっており、これが、宗教的適時性(religious readiness)の発見にどのように適用されているかを見なければならぬ。このプロセスは至る所で殆んど行きわたっているので私たちは、キリスト教教育を家庭・学校社会においても教会においてと同じく見なければならぬであろう。(続)

あか勝て! しろ勝て!

関西地方会 野外礼拝 及 体育大会

さる 5 月 18 日、関西地方会の全教会が合同で野外礼拝と体育大会をおこなった。服部緑地に日曜学校の生徒から一般信徒、そして青年会

の若い人たちがひとつ所に集まって、5 月のさわやかな風と太陽をあびながら、礼拝と体育大会で、一日を本当に楽しくすごした。

